

李箱 詩에 나타난 異常心理와 難解性

邊 鍾 泰*

目 次

- | | |
|-----------------|-----------------------------------|
| I. 緒 論 | (1) 「烏瞰圖」의 難解性 |
| II. 本 論 | (2) 「三次角設計圖」와 「異常
한 可逆反應」의 難解性 |
| 1. 異常心理의 展開 | 3. 「烏瞰圖」의 周邊 |
| (1) Complex의 表現 | |
| (2) 거울의 이미지리 | III. 結 論 |
| 2. 難解性的의 實際 | |

I. 緒 論

모든 인간은 被造物이면서 동시에 무엇인가를 創造한다. 그 創造의 對象이 文學일 경우 創造物은 곧 作者自身の 內面世界의 發現이라고 해도 過言이 아닐 정도로 그 底層에 土臺가 되는 것은 作者의 心理이며, 作品은 또한 나뉠대로의 生命을 지닌 宇宙가 된다. 다시 말하면 創作者만의 독특한 세계를 나뉠 방식으로 表現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創作作業에서 創作된 作品을 結果라 한다면, 그 原因이 되는 要素는 例舉할 수 없을 만치 多樣하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看過할 수 없는 것은 作者의 意識이며 思想이며, 事物에 대한 視覺과 心理現象일 것이다.

* 회원

韓國現代詩史에서 李箱의 詩篇들은 難解詩의 標本처럼 化石化되어 望柱石처럼, 길고 긴 외로움을 달래며 홀로 서 있다. 이러한 評價를 받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그의 짧고 奇異한 生涯에 注目한 結果로 보인다. 또한 이는 지나치게 作家에 집착한 結果일 것이다. 그것은 그의 創作過程에 多大한 影響을 부여한 幼年時節부터 그가 經驗한 많은 일들이 平凡한 삶을 영위한 사람들로서는, 그들의 평범한 價値觀으로는 平범한 意味이기보다는 傳說이나 神話에 등장하는 新奇한 人物로 評價한 結果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李箱의 文學과 生涯에 대한 本格的인 研究者들은 吳圭原(1980), 金勝熙(1981), 李昇薰(1983)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의 論議는 偏狹됨이 없이 生涯와 作品에 대한 多角照明을 통한 全般的인 研究業績은 크나큰 수확인 동시에 이들의 연구는 李箱文學에 대한 綜合的인 論議라는데 價値를 높이 평가할 筈이다. 이들 諸氏의 研究 이외에도 그 篇數를 다 헤아리지 못할만치의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데, 李箱의 詩·小說·隨筆 等 文學장르의 全般에 걸쳐 200篇이 채 안되는 作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歿한지 50餘年이 지난 세월동안에 3~4배에 달하는 研究·論議는 무엇보다도 文學에 관한한 '問題의 人物'이었음을 立證한다고 보아도 좋을 듯 하다.

李箱에 대한 文學的 評價는 兩極端에서 그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는 평평한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다. 그에 대한 否定的인 評價를 살펴보면 '의미조차 알 수 없는 더듬이의 말'¹⁾, '그의 文學은 혼돈이고 무질서이고 괴물이다'²⁾, '언어의 가능성을 충분히 살리지도 못했고, 현실의미를 포괄적으로 드러내지도 못했으며, 절대의 세계를 탐구하지 못했다. 다만 意識의 分裂을 제시하다 실패하고 말았다'³⁾ 등인데 반해 肯定的인 評價를 하는 사람들은 '가장 우수한 최초의 모더니스트'⁴⁾, '新詩 以後 오늘까지 人間을 그 意識의 面에서 觀察한

1) 金億, 「詩는 機智가 아니다」, 《每日新報》, 1939. 4. 1

2) 金烈圭, 「現代의 言語의 求濟와 李箱文學」, 《國文學論文選》, 민중서관, 1977.

3) 鄭漢淑, 《現代韓國文學史》, 高麗大學校出版部, 1983 p. 208.

4) 金起林, 「모더니즘의 역사적 위치」, 《詩論》, 白楊堂, 1947.

最初의 詩人⁵⁾, '우리문학의 불모지대인 존재탐구의 자세를 보여주었다'⁶⁾ 등의 見解를 보여주었다.

이처럼 한 作家의 作品에 대해서 爭點이 많다는 것은 그 理由가 어떠한지든 作品에 論議될만한 문제가 많다는 立證이긴 하지만, 여러 評者들의 見解나 評價들은 論者들 나름대로의 評價基準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一見 妥當하기는 하나, 또 한편으로는 많은 誤謬와 感情의 介入을 否認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한 作品이 存在하기까지는 적어도 그 나름의 內的 當爲性を 內包하고 있음을 考慮할 때 설부른 評價나 비난은 誤謬를 범하는 褻敬임을 銘心해야 하리라 본다.

論者は 이러한 諸般 論議의 要素 위에서 다음 몇가지 項目을 통해서 李箱의 韓國文壇史에 있어서의 位置를 再照明하고자 한다. 첫째는 Complex의 文學的 受容과 이미지리의 破壞를 통한 異常心理의 文學的 展開이며, 둘째는 李箱에서 비롯된 韓國詩壇에서의 難解性에 대한 論議에 注目, 難解詩의 發生背景과 李箱詩에 있어서의 「烏瞰圖」와 「線에 관한 覺書」, 「異常한 可逆反應」 등에 대한 檢討로 難解性에 관한 實際이며, 셋째는 「烏瞰圖」發表當時 文壇이나 一般讀者들이 受容할 準備가 되어 있지 않은 生경한 思潮의 導入을 통해 문단의 反省의 계기를 부여했음과 관련하여 「烏瞰圖」周邊에 대한 考察을 통해서 李箱의 文學史的 位置를 再照明하고자 한다.

이는 “의식적으로 부자연스럽고 難澁하고 反自然的인 藝術은 直接性이나 自然發生性, 자연스러움 등의 原理에 의해 判斷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藝術은 분명히 이 原理들이 過去의 것이 되고 無意味하고 천박한 거짓 원리로 되어 버렸다는 感情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다.”⁷⁾ 라는 아놀드·하우저의 言及에서 또하나의 다른 意味를 發見하고자 함이기 때문이다.

5) 金柱演, 「詩文化의 意味와 限界」, 《李箱》, 文學과 知性社, 1986.

6) 정명환, 「否定과 生成」, 《한국인과 문학사상》, 一潮閣, 1964.

7) 아놀드·하우저, 「藝術과 疎外」

Ⅱ. 本 論

1. 異常心理의 展開

(1) Complex의 表現

李箱의 生涯가 波瀾萬丈한 파노라마였다는 것은 이미 周知의 事實이기는 하지만 詩人으로서의 李箱의 삶은 고뇌와 고통의 連續體, 그 自體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N·N·드라클리데스가 <藝術家와 作品의 精神分析>에서 말했던 다음의 言及은 示唆의 이다.

創作이란 實現을 위한 藝術的 才能이 存在한다는 必要不可缺한 條件 아래서 人間의 이같은 滿足은 缺如, 또는 欲求挫折의 모두가 藝術創造로 모습을 變化한 것이다. 한편 才能은 藝術家의 生活에서 생기는 欲求挫折과 心的外傷이 없이는 꽃 필 수 없는 것이다.

李箱의 生涯와 文學作品을 통해 나타나는 異常心理는 크게 다섯가지로 區分해 볼 수 있다. '家長 拒否心理', '모성결핍으로 인한 모친 Complex', '去勢 恐怖症', '慢性的 自殺衝動', '被害妄想으로 인한 音頌症' 등이 그것들이다. 또한 李箱과 그의 文學은 破壞와 否定的 代名詞와도 같은 것이었다. 그는 傳統과 習俗, 先行한 一切의 것을 眼中에 두지 않았다. 도무지 허망하기만한 文學에 投身하겠다는 생각 하나로, 그가 安定된 職場과 상당량에 달하는 보수를 팽개쳐버린 사실은 身病을 理由로 이야기 되고 있으나 熱病과도 같은 文學에 대한 愛情에서 起因한 것이었으며 이는 平凡한 人間으로서의 삶, 生活人으로서의 삶을 포기함을 의미하며, 定時 出勤·退勤等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규칙적이고도 日常의인 生活은 그의 精神을 구속함에 대한 反抗적이고도 反발적행위로 보인다.

이러한 李箱에 대한 여러 評者들은 그를 나르시소스의 知的後裔라고 이야기

한다. 자신의 無意識의 심연에 內在된 異常心理 때문에 자신의 內面露出을 극도로 꺼려했고, 가능하다면 家庭的·社會的 待遇마저도 단념하길 희망했던 것으로 보인다. 藝術的 表現, 特別 言語를 통한 文學創作의 과정은 어떠한 의미에서는 內面世界의 露出이 必然的인 것이며 自己告白이 따르게 마련이다.

墳塚에 계신白骨까지가 내게 血清의 原價償還을 強請하고 있다. 天下에 달이 밝아 서나 는 오돌오돌 떨면서 到處에서 돌킨다. 당신의 印繼이 이미 失効된 줄은 꿈에도 생각 않으시나 요. -하고 나서는 의 것이 대꾸를 해야겠는데 나는 이렇게 실은 決算의 函數를 내 몸에 지닌 내 圖章처럼 쉽사리 끌려 버릴 수가 참 없다.

-「門閥」全文

門을 암만 잡아 다 너도 안 열리는 것은 안에 生活이 모자라니까 다행이다. 밤이 사나운 꾸지람 으로나 돌출된다. 나는 우리 집 내 門牌 앞에서 여간 성가신 게 아니다. 나는 밤속에 들어서서 제웅처럼 자꾸만 滅해간다. 食口야 封한 窓戶어 데라도 한구석 터놓아 다고 내가 收入되어 들어 가야 하지 않나. 지붕에서리가 나리고 보죽한 데는 鍼처럼 月光이 묻었다. 우리 집이 얼마나. 壽命을 혈어서 典當 잡혀나보다. 나는 그냥 門고리에 쇠사슬 늘어지듯 매어 달린다. 門을 열려고 안 열리는 門을 열려고.

-「家庭」全文

以上的 詩篇들에서 '내 뼈불이, 내 살불이, 내 땀줄'이라고 무작정 자신들과 동일시하며 못다한 자신들의 꿈을 詩人에게 쏟아부으려는 祖上들에게 李箱은 혐오와 거부와 증오를 느낀다. 그리고 그 先祖들은 죽어 땅 속에 묻혀서도 門閥의 꿈이라는 요구와 명령을 멈추지 않고 詩人의 意識을 억누른다. 그는 祖父와 伯父와 親父의 세속적인 期待를 한몸에 받으면서 쓰러져가는 家門의 莫重한 繼承者로 등장한 것이었다. 또한 詩人은 이러한 자신을 '제웅'과 같은 처지로 생각하고 있다. 제웅이란 앓는 사람이나怒이 낀 사람을 위하여, 혹은 陰曆 1月 14日 저녁에 액막이로 짚으로 사람의 形像을 만들어 집 밖에 내다버린 呪物인 것이다. 그는 말하자면 門閥의 제웅, 儒敎的 家族觀念이 빛어낸 家門의 祭物이나 犧牲者로 자신을 인식하면서, 이른바 家長拒否와 제웅의식을 동시에 보이고 있는 것이다.

精神分析學者 金鍾殷은 이러한 非正常的 環境에서 '同一觀 混沌'과 '分離不安'이 詩人의 意識 속에 異常心理로 자리잡은 것으로 分析한다.⁸⁾

8) 金鍾殷, 「李箱의 精神世界」, 《文學批評의 方法과 實際》, 東泉社, 1975.

나의아버지가나의겉에서조을적에나는나의아버지가되고또나는나의아버지의아버지가되고그런데도나의아버지는나의아버지대로나의아버지인데어찌자고나는자꾸나의아버지의아버지의아버지의……아버지가되니나는왜나의아버지를경중뛰어넘어야 하는지나는왜드디어나의아버지와나의아버지의아버지의나의아버지와아버지의아버지노릇을한꺼번에하면서살아야하느냐.

—「烏瞰圖 詩第二號」全文

또한 그는 이 「烏瞰圖 詩第二號」를 同一視 混沌의 典型으로 보고 있는데 同一視現象이 잘 이룩되면 自我確立(self identity)이 순조로우나 同一視의 形成過程에서 對象이 否定的이거나 혹은 너무 많으면 혼돈을 일으켜 차라리 없느니 보다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하면서 李箱의 경우 자기 아버지와 그리고 할아버지와 자기를 동일시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써 빚어지는 혼돈을 투사(projection)를 통해서 거꾸로 묘사한 作品이라 한다. 또한

天界에서 三十年동안이나 살아온사람(어떤科學者) 三十萬個나 넘는 별을 다 빼어 놓고만 사람(亦是) 人間七十 아니 二十四年동안이나 뻔뻔히 살아온 사람(나)

나는 그날 나의 自叙傳에 自筆의 訃告를 挿入하였다. 以後 나의 肉身은 그런 故郷에는 있지 않았다. 나는 自身 나의 詩가 差押當하는 꼴을 目睹하기는 차마 어려웠기 때문에.

—「一九三三, 六, 一」全文

에서는 自身을 二十四年동안이나 뻔뻔히 살아온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二十六年 七個月동안의 삶으로 夭折한 李箱의 죽음은 이러한 의미에서 그 죽음의 方式은 예비된 것이자 돌발적인 것⁹⁾이었다. 물론 죽음은 누구에게나 예비된 것, 즉 준비된 것이다. 이러한 기본원칙에 抗拒하는, 혹은 어긋나는 죽음들이 到處에 散在한다. 이렇듯 萬人에게 공통되는 문제인 죽음은 李箱에게 있어서 특별한 의미를 지녔고, 죽음은 그의 文學에 있어서도 커다란 그림자로 자리하고 있다.

9) 金允植, 「제우스神像, 예수像에의 길」, 《文學思想》(1987. 6~10月號).

李箱이 불과 3살의 나이에 親父母와 생이별 당하여 伯父의 집에서 生活해야 했던 것은 分離不安과 함께 모성결핍으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그에게는 심한 경쟁의 대상이 생긴다. 그에게 형식상 어머니 대신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 큰어머니에게는 데리고 들어온 자식이 있었다. 그리고 보면 어린 李箱이 겪어야 했던 눈치생활(심리적 박해)도 충분한 짐작이 가는 일이다. 이러한 幼年時節을 지낸 그에게 있어서는 否定的 女性觀을 形成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지는데, 그로 말미암아 그에게 있어서의 女性이란 무섭고, 두려운 存在, 그러나 감히 그것을 表現할 수는 없어 意識으로는 한낱 依存物에 不過한 存在였던 것이다.

이러한 李箱에게 있어서 否定的 女人으로 그의 삶에 表面化되는 최초의 女人은 朝鮮總督府 建築技士職을 身病으로 인해 辭職하고 畫友였던 具本雄과 백천은천으로 요양차 갔다가 만난 錦紅이란 女人이다.

蒼白한여차

얼굴은여차의履歷書이다. 여차의입은작기때문에여차는溺死하지아니하면아니되지만여차는물과같이때때로미쳐서狂亂해지는수가있다. 온갓밝음의太陽들아래서여차는참으로맑은물과같이떠홀러가고있는데참으로고요하고매끄러운 表面은 조약들을삼켰는지아니삼켰는지항상소용돌이를갖는褪色한純白色이다.

등쳐먹으려고하길래내가먼침한대먹여놓았쑤

잔내비와같이웃는여차의얼굴에는하룻밤사이에참아름답고판드르르한 赤褐色 초콜레이트가無數히열매맺혀버렸기때문에여차는마구대고초콜레이트를放射하였다.

—「狂女の告白」一部

時計를 보면 아모리 하여도 一致하는 時日을 誘引할 수 없고
내것아닌 指紋이 그득한 네 肉體가 무슨 條文을 내게 刑刑하겠느냐.

—「無題」一部

계증을 信用치않는 나를 계증은 絶對로 信用하려들지 않았다. 나의 말이 계
증에게 落體運動으로 影響되는 일이 없었다

계증은 늘 내 말을 눈으로 들었다 내 말한마디가 계증의 눈자위에 떨어져
본적이 없다

期於코 市街에는 戰火가 일어났다 나는 오래 계증을 잊었었다 내가 나를
버렸든 까닭이었다

—「普通記念」一部

以上の 詩篇들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또하나의 異常心理는 變形된 形態의
외디푸스 콤플렉스라 할 수 있겠다. 幼年期 어떤 絶對힘—伯父에게 아들이 없
음으로 인해서 伯父宅에서 祖父와 伯父 아래서 教育을 받았던 것—으로부터
모성을 박탈당한 후 形成된 女性에 대한 시각은 '계증'정도의 하찮은 존재이
면서 또한 否定的 人間形이었다. 그리고 不貞한 여인과 同居하면서 '一致하는
時日을 誘引할 수 없는' 狀況, 自身을 信用하려들지 않는, 등쳐먹으려고 하는
이른바 否定的 表象이었다 하겠다.

이렇게 李箱에게 否定的 女人像—錦紅으로 代表되는—으로 등장하는 그의
주변 女人들에 대해 自身の 性的 不具를 만회하기 위해 第三者를 통해 서로간
의 性的 滿足을 기도한다.

내키는커서다리는길고원다리아프고안해키는작어서다리는짧고바른다리가아프니
내바른다리와안해원다리와성한다리끼리한사람처럼걸어가면아이夫婦는부축할
수없는걸뭉발이가되어버린다無事한世上이病院이고꼭治療를기다리는無病이끝끝
내있다

—「紙碑」全文

안해는 아침이면 외출한다 그날에 該當한 한 男子를 속이려 가는 것이다 順
序야 바뀌어도 하로에 한 男子 以上은 待遇하지 않는다고 안해는 말한다 오늘이
야말로 정말로 돌아오지 않으려 나보다하고 내가 완전히 絶望하고나면 化粧은 있
고 人相이 없는 얼굴로 안해는 形容처럼 簡單히 돌아온다 나는 물어보면 안해

는 모두 率直히 이야기 한다 나는 안해의 日記에 萬一 안해가 나를 속이며
들었을 때 합당한 連配를 男便된 資格 밖에서 敏捷하게 代書한다.

-「紙碑·-」全文

키가 크고 다리가 길고 원다리가 아픈 자신과 반대로 키가 작고 다리고 짧
고 바른 다리가 아픈 '안해'와의 不調和는 '부축할 수 없는 질퍽발이' 夫婦가
되어버리는 상황, 다시말하면 '그날에 該當한 한 男子를 속이려' 나가야할 정
도로 性的 欲求가 旺盛한 아내와 性不具의 '내'가 벌이는 不一致와 不調和의
삶은 결국 파탄의 길을 걸어야 했다.

이러한 李箱의 女性關係에 대해 金勝熙¹⁰⁾는 構造主義 批評家 René Girard
의 '欲望의 三角形(désir triangulaire)'¹¹⁾ 理論을 통한 分析을 통해 李箱과 그의
女人들—錦紅, 權順玉, 卞東琳—과 자신 사이에는 變態성욕에 가까운 만큼의
관계가 形成되는데 자신이 사랑하는 女人들을 第三의 사내들에게 권하거나 매
음을 시키고 두 사람이 情事를 벌이는 방앞에 쪼그러 앉아 그들의 性戲를 지
켜보는 가운데 性的 滿足을 얻는 등의 행위를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一連의 행위와 그의 의식의 심연에 깔린 異常心理는 그의 文學世界

10) 金勝熙, <第十三의 아해도 위독하오>, 文學世界社, pp. 57~63

11) René Girard가 '欲望의 三角形(désir triangulaire)' 理論에서 최초로 分析을
시도한 것은 Cervantés의 <Don Quichotte>의 主人公 Don Quichotte의 人
物分析을 하면서 展開한 理論이다. 한 人間이 어떤 對象(欲望)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직접 대상에 접근하지 못하고 欲望의 間接化 現象(médiation)을
통한 간접성취의 방법을 취하게 되며, 그 예로 기독교인이 진정한 기독교인
이 되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예수에게 직접 접근하지 못하고 예수의 모방
형태인 진정한 기독교인(목사)을 통하게 되는데 이 때 기독교인과 진실한
기독교인, 예수는 세 개의 꼭지점을 형성, 욕망의 三角形을 完成하게 되는
데 진정한 기독교인(목사)은 욕망의 中개자(médiateur)가 되며 이처럼 중개
자를 통한 간접화된 욕망을 '삼각형의 욕망'이라고 부른다. René Girard는
소설주인공의 욕망은 이와같은 삼각형의 구조를 갖고있다고 함으로써 시장
경제체제의 사회 속에서 개인은 그 욕망마저 자연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중
개자에 의해 감시된 욕망을 소유하였음을 제시한 셈이 되었고, 그럼으로써
주인공의 욕망구조와 주인공을 태어나게한 사회의 경제구조 사이에 구조적
동질성을 발견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에서도 강한 분출이 그 흔적으로 남는다. 이는 비록 '性的 이미지들이 전혀 깊이를 지니고 있지 않아 간단한 방법으로 풀 수 있는 暗號같이 되어 있다'¹²⁾ 고 하는 평을 받기는 했으나 이는 詩作品을 지나치게 平面的인 視覺으로 照明했다는 비판의 시각을 면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2) '거울'의 이미지리

現代詩文學史에서는 비유적으로 두 개의 '거울'이 있다. 하나는 反映의 거울이요 다른 하나는 呪術의 거울이다. 前者는 유리거울, 後者는 구리거울로써 代表된다.¹³⁾ 이러한 거울의 이미지리가 詩史的으로 對立樣相을 보이는 것은 李箱의 거울과 尹東柱의 거울을 들 수 있다. 이들은 거울을 철저히 自我檢證과 省察 等の 自我認識 對象으로 삼음으로써 이들의 詩는 남달리 거울현상을 통한 詩的 自畫像의 性格을 띠고 있다.

李箱의 경우, 그의 詩「거울」, 「明鏡」, 「烏瞰圖 詩第十五號」 등이 거울을 모티프로 써놓은 詩篇들로써 自意識의 相關物로서의 거울에 대한 그의 강박관념은 反射의 媒體인 거울을 통해 自我의 二重性을 解剖하고 있다.

거울속에는소리가없소
저렇게까지조용한세상은잠없을것이오

거울속에도내게커가있소
내말을못알아듣는딱한귀가두개나있소

거울속의나는왼손잡이오
내握手를반을줄모르는-握手를모르는왼손잡이오

거울때문에나는거울속의나를만져보지못하는구로마는
거울이아니었던들내가어찌거울속의나를만나보기라도했겠소

나는至今거울을안가졌소마는거울속에는거울속의내가있소
잘은모르지만의로된事業에골몰할게요

12) 鄭漢淑, 《現代韓國文學史》, 高麗大學校出版部, p. 207.

13) 李在鎭, 《우리문학은 어디서 왔는가》, 소설문학사, pp. 112~117.

거울속의나는참나와는反對요마는
또페담았소
나는거울속의나를근심하고診察할수없으니피습습하오

—「거울」全文

여기 한 페-지 거울이 있으니
잇은 季節에서는
없은 머리가 瀑布처럼 내리우고
.....〈中略〉.....

설마 그러라? 어디 觸診.....
하고 손이 갈 때 指紋이 指紋을
가로 막으며
선뜩하는 遮斷판이다.

—「明鏡」一部

나는거울이없는室內에있다. 거울속의나는역시外出中이다. 나는지금거울속의나를
무서워하며멀고있다. 거울속의나는어디서나를어떻게하려고陰謀를하는中일까.
.....〈中略〉.....

나는거울이있는室內로들어간다. 나를거울에서解放하려고그러나거울속의나는沈
鬱한얼굴로同時에꼭들어온다. 거울속의나는내게未安한뜻을傳한다. 내가그때문에
囹圄되어있으키고나때문에囹圄되어멀고있다.
.....〈中略〉.....

내왼편가슴心臟의位置를防彈金屬으로掩蔽하고나는거울속의내왼편가슴을겨누어
拳銃을發射하였다. 彈丸은그의왼편가슴을貫通하였으나그의心臟은바른편에 있다.
.....〈中略〉.....

—「烏瞰圖 詩第十五號」一部

거울이란 事物을 反射 및 反映해주는 機能을 한다. 그래서 인간은 거울의
反射現象을 통해 自我의 存在를 客體的으로 形象化시킬 수 있게 된다. 또 거
울의 영상을 통해서 自我와 世界의 二重性を 體驗하거나 알게 된다. 이러한
二重性이란 外界의 形象인 '거울 밖의 나'와 內面の 反映인 虛像, 즉 '거울
속의 나'의 對立과 共存現象인 것이다.

「거울」에서는 이러한 二重性이 한 個人에 두개의 人格이 交互함을 전제로
안과 밖의 斷絶과 異質性, 그리고 位置의 顛倒와 뒤바뀜, 서로가 서로의 세계
에 접촉하거나 流入될 수 없는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 언어의 有無狀態와 그

소리에 反應하거나, 못하는 귀와 귀의 對立이, 서로 손을 잡을 수 없는 위치의 뒤바뀜과 觸指不能과 對面의 可能性이 提示된다. 이는 또한 現代人の 二重性과 自我分裂을 診斷하는 自意識文學의 代表라 할 수 있겠다.

「明鏡」에서는 거울 內面世界로의 不可入性, 즉 거울 속의 分離된 세계로 들어감에 대한 遮斷과 「烏獸圖 詩第十五號」에서는 거울에 대한 恐怖心理가 表出되어 있다. 이렇듯 앞에서 제시한 거울을 모티브로 한 一連의 作品들에서는 自我의 二重性에 대한 강박관념이 강하게 內在되어 있다. 反射된 '거울 속의 나'와 '거울 밖의 나'가 共存·對立하면서 自己同一性의 混亂에 빠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二重的 自我의 對決恐怖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거울은 李箱에게 있어서 迷路나 감방으로까지 느껴게 한다. 또한 그에게 있어서의 거울은 철저히 共存인 동시에 對立이며, 精神分裂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精神病理學的 性格을 띠면, 다시 말하면 自己分裂의 이미지리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李箱은 나르시스의 知的後裔라고 한다.¹⁴⁾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나르시스는 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연모하다 빠져 죽어서 水仙花가 되었다는 그리스인의 神話의 人物이다. 그러나 나르시스가 水面에서 본 것은 진정한 自我가 아니었다. 이와 類似하게 李箱의 거울은 그의 自意識의 世界를 통해 悲劇의 自己探究의 모습과 그에 대한 失敗의 軌跡을 집약적으로 살필 수 있다. 그리고 李箱文學 研究者들은 李箱에게 있어서의 거울의 이미지리에 대해 다양한 주석을 가해왔다. 이를테면 자의식의 세계(염무웅), 꿈(김주인), 現象世界를 反映하는 시장바닥에서 파는 보통거울(김윤식), 양심의 거울(엄국현), 자의식의 세계(김교선), 人工的인 것, 달린세계, 事物, 보통 유리거울(정금철) 등이 그것인데 이렇게 評者마다 각기 다른 이미지리를 유추하는 것은 그만큼 李箱文學에 대한 多角照明이 必要함을 反證한다고 본다. 그리고 또 한가지 看過해서는 안될 것은 前項에서 살펴보았듯이 李箱에게는 平凡한 人間의 平凡한 常識으로는 觸指를 不許하는 異常領域이 있다는 것인데 이는 當代文學現實에

14) 金烈圭, 〈現代의 言語的 救濟와 李箱文學〉, 〈知性〉, 1972年 2月號.

投射해 볼 때 '거울'이라는 事物은 當時 그의 文學을 올바르게 理解하지 못하는 社會, 文壇 혹은 社會의 無智한 讀者들에 대한 냉소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도 좋을듯 하다.

2. 難解性的 實際

(1) 「烏瞰圖」의 難解性

T·S·Eliot는 〈詩의 効用과 批評의 効用〉에서 難解詩의 發生背景에 대해 다음의 4가지 項目으로 說明했다.

① 詩인이 자기자신을 表現하는데 있어서 결국 모호한 方法 以外에는 다른 方法을 취할 수 없게끔하는 어떤 個人的 理由.

② 워즈워드, 셸리, 키이츠, 테니슨, 보라우닝 이래 많은 詩인들이 詩에서 소박성보다 新奇性을 추구하였다는 점.

③ 詩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讀者들의 固定觀念.

④ 讀者가 詩에서 發見해 내려는 要素를 詩인이 처음부터 제거해버리는 습성.

이러한 태도에서 創作된 詩를 마주하는 순간 讀者들은 大部分 당황하게 되는데, 上記 엘리엇의 지적은 우리詩의 現像을 理解하고 評價하는 과정에서 暗示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지적에서 엘리엇는 難解詩의 概念이 널리 퍼져, 그것이 굳게 자리를 잡게된 책임을 讀者 보다는 오히려 詩인에게 돌리려한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제시한 ①은 詩가 아무리 모호성의 表現樣式이라 하더라도 그 모호의 정도가 지나치면 詩가 不可解의 領域로 추락할 수 밖에 없다는 경고를 내포하고 있다. 물론 讀者들의 能力에 따라 모호성의 범위와 정도가 커질 수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 詩가 讀者들이 多角的인 解釋을 할 수 있을만큼 탄력성이 있을 때 그 詩는 잘된 作品으로 評價될 수 있는 可能性도 크다. ②에서 新奇性이란 말은 지나친 實驗意識, 輕薄한 느낌마저 주는 技巧主義 등의 意味를 지닌다고 하겠다. 新奇性的의 추구는 詩의 內面性 뿐만 아니라 外面的으로도 많

이 시도된다. ③의 要因은 難解詩의 發生에 對한 責任의 一端을 讀者들의 因習의인 讀者態度나 詩에 對한 讀者들의 固定觀念에 돌리고 있는 것이다. ④의 要因은 詩人의 創作態度에 難解性의 責任이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생경한 이미지의 연결이나 讀者의 攄인 想像의 世界를 詩人의 創作過程에서 삭제 혹은 제한함으로써 難解性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Eliot와 함께 主知主義를 표방한 것으로 널리 알려진 T·E·Hulme은 메마르고 딱딱한 詩, 가슴못지 않게 머리를 많이 써야 理解 可能한 詩를 새로운 詩의 立像이라고 보았다. 이에 비해서 讀者들의 立場으로 본다면 讀者를 깜짝 놀라게 만들지 못하는 詩, 情緒를 確認시켜주지 못하는 詩는 결국 難解詩로 보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李箱이 當代 文壇이나 讀者들에게 생경한 思潮인 超現實主義(Surrealism)나 다다이즘(Dadaism)을 어떤 경로로 受容하였는가. 文學을 비롯한 藝術은 時代相을 反映한다. 19세기말 英國의 産業革命에서 비롯된 機械文明의 급속한 발달과 20세기 2차세계대전이 마련한 不安意識은 급기야 非合理主義的 思考의 바탕을 이루기에 充分했다. 이에 연유라도 한듯이 반·고호의 인상파에 심취하여 물체의 표리와 상하좌우를 동시에 보려는 입체파운동이 1907년 피카소에 의해 프랑스에서 있었고, 기계의 다이나미즘에서 힌트를 얻어 물체를 삼각형, 사각형, 또는 육각형 등으로 환원해 보려는 마리네티의 미래파운동이 1909년에 대두함으로써 제2의 르네상스라고 일컫는 변형(데포르마시옹)의 驚異의 美學基準을 이루게 되었고, 이를 起點으로 1910년 포말리즘(Formalism)을 위시한 러시아의 아방가르트의 胎動(1917년 볼세비키革命에 의해 무산, 大部分 망명), 1912년 T·E·Hulme의 哲學에 힘입은 이미지즘(Imagism) 運動이 象徴主義의 수정형태로 출발했으며, 뒤이어 1917년 1차세계대전으로 中立國인 스위스에 모였던 畫家·詩人들이 중심이 되어 既成觀念의 破壞와 새로운 秩序의 創出을 부르짖었던 T·Tzara 등의 Dadaism, 이어서 1924년 프로이트의 精神分析學에 기초를 둔 超現實主義가 앙드레 브로통에 의해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것이다.

이러한 一連의 思潮가 當時 東洋文化의 中心地라고 할 수 있는 日本에 流入

되면서 1920年代부터 30年代 韓國 知識人들의 知的資源의 源頭인 日本을 통해 축적되었던 사실에서 볼 때 李箱이 日本에 소개되었던 다다이즘과 超現實主義의 影響을 받았다는 것은 否定하기 어렵다.

李箱이 朝鮮建築會機關誌인 <朝鮮과 建築>에 「異常한 可逆反應」을 發表한 것은 1931年, 그가 22세 되던 해의 일이었으며, 日本에서는 모더니즘詩運動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詩와 詩論>이 創刊된 것이 1928年 9月임을 상기할 때 兩者間의 影響관계는 입증되리라 본다. 다시말하면 李箱의 異常心理와 當時 世界文壇의 거센 기류가 충돌하여 현란한 불꽃을 일으켰다고 보아도 좋을듯하다.

前後左右를 除하는 唯一의 痕迹에 있어서

翼殷不逝 目大不覿

胖矮小形の神의眼前에我前落傷한故事를有함



(臟腑라는 것은 浸水된 畜舍와 區別될 수 있을는가)

-「烏歌圖 詩第五號」全文

患者의容態에關한問題

I I I I I I I I I I I I
S S S S S S S S S S S S S S S S
E E E E E E E E E E E E E E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P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T T T T T T T T T T T T T T T T
R R R R R R R R R R R R R R R R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 O O O O O O O O O O O O O O

診斷 0.1

26. 10. 1931

以上 責任醫師 李 箱
—「烏瞰圖 詩第四號」全文

이러한 作品들은 詩라고 하느니 차라리 수학놀이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言語의 意味와 數學의 보편적인 等式, 즉 既存의 價値와 秩序를 破壞하는 것이 다다이스트들의 目標였다고 한다면, 李箱은 자신의 생활까지도 철저하게 파괴시킨 완벽한 다다이스트로 평가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烏瞰圖 詩第五號」에서는 부제처럼 되어 있는 ‘患者의 容態에 關한 問題’, ‘診斷 0.1’, ‘26. 10. 1931’, ‘以上 責任醫師 李箱’이라는 단어들은 日常의 自我 혹은 非本來的의 自我를 表象한다. 특히 ‘責任醫師 李箱’이라는 말은 詩의 話者가 거의 詩人과 밀착됨을 보여준다. 그러나 詩의 話者가 곧 李箱 자신일 수 없음은 ‘責任醫師’라는 말 때문이다. 詩의 話者는 詩人이 아니라 의사의 탈을 쓰고 있는 것이다. 數學的 記號의 世界가 表象하는 자아, 곧 일상성이 現象학적으로 환원된 그러한 자아는 이 詩에서 전복된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형태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은 추상적 자아에 대한 통일적 자아, 즉 詩人 李箱의 反語的 態度이다. 다시 말하면 이 詩는 그러한 自我에 대한 統一的 自我로서의 李箱의 反語的 態度, 나아가 統一的 自我로서의 詩人이 자신을 ‘責任醫師’라고 命名함으로써 드러나는 또 하나의 反語的 態度, 그러니까 詩人 자신에 대한 반어적 태도를 드러내는 것 같다. 특히 後者의 反語性은 韓國詩에서 좀처럼 드러나지 않던 特異한 形式의 反語性이다. 문제는 이 詩에서 환자의 정체가 과연 무엇인가에 있다.¹⁵⁾

15) 이승훈, 「이상시 연구—자아의 시적 변용」, 연세대학교 대학원, 1983.

(2) 「三次角設計圖」와 「異常한 可逆反應」의 難解性

「三次角設計圖」7篇의 詩와 「異常한 可逆反應」의 6篇의 詩들은 朝鮮建築會機關誌인 〈朝鮮と建築〉에 發表된 作品들인데 이들은 그의 初期作品에 該當하는 것들인데 그 難解의 정도는 그 後의 作品들에 비해 좀더 심하다는 印象을 풍긴다. 또한 前期 作品들만큼 詩的 緻密性도 덜하다고 볼 수 있겠다.

1 + 3

3 + 1

3 + 1 1 + 3

1 + 3 3 + 1

1 + 3 1 + 3

3 + 1 3 + 1

3 + 1

1 + 3

線上의 一點 A

線上의 一點 B

線上의 一點 C

A + B + C = A

A + B + C = B

A + B + C = C

-「線에 관한 覺書2」一部

	1	2	3
1	·	·	·
2	·	·	·
3	·	·	·

$$\begin{array}{cccc}
 & 3 & 2 & 1 \\
 3 & \cdot & \cdot & \cdot \\
 2 & \cdot & \cdot & \cdot \\
 1 & \cdot & \cdot & \cdot
 \end{array}$$

∴ $nP_n = n(n-1)(n-2)\cdots(n-n+1)$

(腦髓는 부채와 같이 圓까지 展開되었다. 그리고 完全히 廻轉하였다)

-「線에 관한 覺書3」全文

彈丸이 一圓+壽를 疾走했다(彈丸이 一直線으로 疾走했다에 있어서의 誤譯等の 修正)

正六雪糖(角雪糖을 稱함)

漂筒의海綿質填充(漂布의 文學的 解說)

-「線에 관한 覺書4」全文

數學의 方位學

4 ⇐ ⇨ 7

數學의 力學

時間性(通俗思考에 依한 歷史性)

-「線에 관한 覺書6」一部

視覺의 이름을 가지는 것은 計劃의 嚆矢이다. 視覺의 이름을 發表하라.

□ 나의 이름

△ 나의 아내의 이름(이미 오래된 過去에 있어서 나의 AMOUREUSE는 이와 같이도 聰明하나라)

-「線에 관한 覺書7」一部

任意의 半徑의 圓(過去分詞의 時勢)

圓內의 一點과 圓外의 一點을 結付한 直線

二種類의 存在의 時間的 影響性

(우리들은 이것에 관하여 무관심하다)

直線은圖를殺害하였는가

顯微鏡

그밑에있어서는人工도自然과다름없이現象되었다.

-「異常한 可逆反應」一部

▽이여!나는 괴롭다

나는 遊戲한다

▽의슬립퍼는菓子와같지아니하다

어떻게나는울어야할것인가

-「破片의 景致」一部

종이로만든배암이종이로만든배암이라고하면

▽은배암이다

▽은춤을주었다

▽의웃음을웃는것은破格이어서우스웠다

-「▽의 遊戲」一部

以上の 詩篇들에서 보면 그야말로 한 번도 읽어 본 적이 없는 古代의 文學, 세상에 그 해독법이 알려져 있지 않은 숨겨진 비밀스러운 고대문자를 대하는 것과 같은 지경에 빠져든다. 李箱의 詩에 있어서 言語는 意味를 환히 드러내 보이는 투명한 유리가 아니다. 누군가가 들여다보기만하면 이내 바닥에 깔린 것들이 알알이 노출되는 가을 물살과 같은 게 결코 李箱의 言語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무엇인가 숨기고 있고 가리고 있는 듯이 보이는 것이다.

詩 바깥 世界에서 이미 굳어진 秩序 또는 규칙으로 고집스레 버리고 있는 言語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李箱의 詩를 읽으려해서는 안된다. 그런 既成의 言語에 관한 지식은 포기되어야 한다. 마치 未知의 古代文學을 읽는 사람과도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결코 詩 바깥의 一般 言語體系를 열쇠로 삼으려고 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三次角設計圖」와 「異常한 可逆反應」에의 一連의 作品들은 여타 좋은 作品들 가운데 놓으면 초라할 정도임을 인정할 수 밖에 없기는 하다. 하지

만 그의 모든 詩의 밑바닥에 一貫해 있는 言語를 繪畫의 方法이라든가, 數學과 記號 等의 象徴的 表現은 여기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이것이 李箱의 詩를 읽어내는 한 방법이기도 한 것이다. 그는 감정을 그대로 露出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客觀的으로 그림을 그리듯이 描寫한다. 그의 詩語의 繪畫的인 使用, 이것이 美術로부터 詩로 옮겨온 그의 修辭法이다.

또한 위의 詩篇들에서 주로 발견되는 것은 記號化된 性 象徴이다. '直線', '圓', '一點', '△', '▽', '□', '슬리퍼', '菓子', '電燈', '담배', '배암', '홍당무', '太陽光線', '凸렌즈', '彈丸' 等의 言語들은 그의 異常心理 중 否定的 女人觀과 그에서 기인한 性的 不具로 말미암은 Complex의 表現이라 할 수 있겠다. 이는 다른 詩篇들에서도 발견되는 '스티크', '棍棒', '且8氏', 'w', '破片', '一小隊의 軍人' 等처럼 그의 詩에서는 이러한 性象徴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心理의 저층에 깔린 文學의 心的인 現象이라 하겠다.

이러한 現象을 難解로 圖式化하거나 詩의 理解에 또하나의 壁을 쌓는 行爲는 止揚되어야 하리라 생각한다. 또한 이는 1980年代로 이어지는 現代詩壇에도 그 一端의 形態에 대한 理解의 視角이라고도 여겨지는 것이다.

이렇듯 李箱에서 出發한 韓國現代詩壇의 難解性問題는 獨特한 文章構造와 數式·數學의 導入, 圖表, 幾何學의 圖形의 插入, 形態主義詩 等의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難解詩의 승계문제는 非對象詩, 無意味詩, 戲詩의 개념까지 포괄되는 擴大의 길을 걸어왔다.

吳圭原의 近作에서 보이는 「프란츠카프카」, 「해태 들菊花」, 「빙그레우유 200ml 패키지」, 「롯데 코코아파이 c·F」¹⁶⁾ 等에서는 1970年代의 모더니즘을 비롯한 기존의 詩法에 반발 새로운 기법과 사조를 시도하는 實驗詩의 一端을 엿볼 수 있다.

16) 吳圭原, 〈가끔은 주목받는 생이고 싶다〉, 文學과 知性社, 1987

-MENU-

샤를르 보들레르 800원
칼 샌드버그 800원
프란츠 카프카 800원

이브 본느프와 1,000원
에리카 중 1,000원

가스통 바슐라르 1,200원
이하브 핫산 1,200원
제레미 리프킨 1,200원
위르겐 하버마스 1,200원

시를 공부하겠다는
미친 제자와 앉아
커피를 마신다
재일 값싼
프란츠 카프카

-「프란츠 카프카」全文

이상의 詩에서 보듯이 ‘시를 공부하겠다’는 것은 ‘미친’ 것으로까지 묘사되는데 이는고도의 은유와 상징 등 다양한 技法을 使用하여, 때로는 內容과 形式의 과감한 반란과 개혁의 시도로 난해시를 낳는 행위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보아질 수도 있겠으나, 詩의 生命的 要素인 自由와 個性의 伸張이나 詩 自體의 內面的 發展過程에서는 긴요한 시도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詩의 難解性에 대한 論議에 局限해서는 一部 詩人들은 精神的 成熟이 不足한 채로 詩를 發表하는 조급성이나, 어떤 경우는 觀念의 遊戱나 言語의 造作을 일삼으면서 加짜시를 쓰는 不正直性이나 과도한 의도, 必要

以上の 感情 過剩 또는 激昂感情의 偏向性, 自由로와야 할 詩人의 네임벨류 (Namevalue)나 권위주의에 사로잡혀 진지하게 自我省察을 거치지 않은 獨善, 排他主義의 我執에 빠져 難解詩를 深化시키는 一連의 詩作行爲 등은 詩人들이 깊이 反省해야 할 것이다.

3. 「烏瞰圖」의 周邊

모든 人間은 葛藤 속에 存在하다. 詩人이라 하여도 결코 例外일 수 없으며, 情緒의 側面이나 感性的 側面은 如他的 사람들보다 조금 더 민감하다 하여도 反論을 제기할 이는 없으리라 본다. 이렇듯 민감한 情緒와 感性이 狀況, 事物에 接脈되어 하나의 作品으로 詩가 存在한다면 詩의 原因이 되는 詩人의 內的 葛藤은 그 외 사람들의 常識으로는 理解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李箱의 「烏瞰圖」에서 그의 葛藤은 다른 詩人들의 그것보다 좀 더 特殊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未發表의 글이기는 하지만 「烏瞰圖」가 1934年 7月 24日부터 8月 8日까지, 당초의 30篇 掲載키로 했던 것을 讀者와 文壇의 빛발치는 望의소동으로 15篇으로 中斷한 以後 그가 써놓은 「烏瞰圖 作者의 말」¹⁷⁾에 注目할 必要가 있다고 본다.

왜 미쳤다고 그러는지, 대체 우리는 남보다 수 십년 썩 떨어져 놓고도 마음놓고 지낼 작정이나. 모르는 것은 내 제주도 모자랐지만 게울러빠지게 놓고만 지내던 일도 좀 뉘우쳐보아야 하지 않느냐. 여남은 게 좀 써 보고 시 만들줄 안다고 잔뜩 믿고 굴러다니는 뽕들과는 물건이 다르다. 이천 점에서 삼십 점을 고르는데 땀을 흘렸다. 31년, 32년 일에서 용대가리를 떡 꺼내어 놓고, 하도들 야단에 배암꼬랑지는 커녕 쥐꼬랑지도 못달고 그만 두니 서운하다…… 이것은 내 새 길의 암시요, 제 아무에게도 굴하지 않겠지만 호령하여도 예코가 없는 무인지경은 딱하다.

이는 李箱 스스로가 文學人으로서 現代文學에 대한 熱望과 文學에 대한 도

17) 文德守, <李箱作品集>, 螢雪出版社, 1978.

李 箱, <李箱隨想錄>, 文章社, 1981.

또한 우울감의 表現이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가 이 글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은 詩人 李箱의 葛藤이다. 世界文壇의 흐름 속에서의 韓國文壇, '남들보다 수 십년씩이나 떨어진' 現實에 대해 李箱은 몸부림치고 있다. 그것은 Blake의 말처럼 賢者만이 자기의 어리석음을 고집할 수 있다. 사회가 그에게, 아니 그의 文學에 대하여 냉담했던 것만큼 그는 文學 때문에 人生까지도 挫折하고 만다. 결국 그의 文學的 眞實을 讀者들에게 인식시킬 수 없었고, 또한 독자들의 냉소는 그를 26年 7個月의 삶으로 夭折할 수 밖에 없도록 방치하고 만 것이다. 그가 20세기의 雄志를 펴기에는 當代 文學的 現實이 19세기의 엄숙한 道德性의 피가 너무 많았다고 자인하듯 결국 그는 "20세기를 근근히 포즈"만 취했을 뿐이었다. 그는 蒙昧한 社會(거울) 때문에 끝없이 절망하면서도 文學을 버리지 못했던 것은 그의 文學에 대한 執念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뒤떨어진 우리 文學을 發展시키고자 했던 그의 文學的 使命感에 있었다고도 하겠다. 그것은 確實히 그의 生涯에 있어서 불행한 것이었다고 하겠으나 우리 文學史의 立場에서는 지극히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결국 그는 社會로의 回歸을 못하고 文學的, 혹은 삶의 새로운 地平을 추구하기 위한 몸부림으로 날개를 파닥여 보았으나 '박제가 된 천재'로 차가운 異域에서 주검이 되어버렸다.

Ⅲ. 結 論

以上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鳥瞰圖」(15篇), 「三次角設計圖」(7篇), 「異常한 可逆反應」(6篇)을 중심으로 李箱의 生涯와 詩 作品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하지만 泰山鳴動에 鼠一匹의 愚를 범한 꼴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기왕의 길인 만큼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서 論者 나름대로의 意味를 다음의 몇 가지로 마무리를 할까 한다.

첫째, 異常心理의 文學的 表現으로서 그의 詩 作品에는 家長拒否心理, 母性 缺乏으로 인한 모친 Complex, 去勢恐怖症, 慢性的 自殺衝動, 被害妄想으로

인한 音頌症 등과 더불어 否定的 女性觀에서 起因한 섹스 콤플렉스(Sex Complex)가 內在되어 있다.

둘째, 거울의 이미저리는 反射와 呪術의 거울로 兩分되는데 李箱의 거울은 反射의 거울로서 日常的 自我와 理想的 自我의 現象學的 對立樣相을 보이는데 그것은 곧 人間 金海卿과 詩人 李箱의 삶의 對立과도 一致한다.

세째, T·S·Eliot에서 비롯된 難解詩에 관한 論議는 現代韓國詩壇에 이르러서까지 深化·擴大되고 있는데, 李箱의 「烏瞰圖」와 「三次角設計圖」, 「異常한 可逆反應」에서의 難解性은 記號와 代數學의 文學的 導入에서 發生되었으나, 難解詩는 文學에 對한 偏見과 先入觀에서 起因한 것이므로 文學을 理解를 前提로 接近하려는 태도가 바람직할 것이다.

네째, 李箱은 天才도 鬼才도 아닌 文學을 熱病으로 앓고 있던 우리 文學의 선구자로서 우리 문학의 밑거름이 되었고 現代에도 우리 문학의 혈관을 도도하게 흐르는 文學적 성과는 그에게서 힘입은 바가 크다 하겠다.

지금까지 李箱文學에 대해 考察해 보았으나 一瞥한 정도로 그의 文學을 評價한다는 것은 보다 큰 誤謬를 범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지금까지 행해져 온 이상문학에 대한 평가는 一放通行의인 面이 없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國內 文藝思潮의인 側面에서는 超現實主義, 心理主義 등의 影響을 받아 非對象詩, 無의미시(Nonsense poetry)의 경향까지 보이는 다다이즘系列의 詩人으로 論議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그의 문학에 대한 좀 더 多元的인 照明을 통한 研究가 있어야 하겠으며, 아울러 모든 詩文學에 대해 理解를 前提로 評價·接近하려는 태도의 文學研究가 指向되어야 하리라 본다.

參 考 文 獻

- 李御寧, 《韓國作家傳記研究(上)》, 同和出版公社, 1980.
- 金勝熙編著, 《第十三의 아해도 위독하오》, 文學世界社, 1981
- 作品集, 《李箱》, 知識產業社, 1982.
- 鄭漢淑, 《現代韓國文學史》, 高麗大出版部, 1982.
- 李昇薰, 《李箱詩 研究》, 연세대학교 대학원, 1983.
- 李尙鎬, 《李箱論》, 《韓國語文學探究》, 民族文化社, 1983.
- 吳圭原, 《언어와 삶》, 文學과 知性社, 1983.
- 張允翼, 《「烏瞰圖」研究》, 《韓國代表詩評說》, 文學世界社, 1983.
- 鄭漢模, 《現代詩論》, 普成文化社, 1984.
- 金容稷編著, 《韓國現代詩의 理解》, 三星美術文化財團, 1985.
- 金俊五, 《自意識과 자기분열-李箱論》, 《假面의 解釋學》, 二友出版社, 1985.
- 李在銑, 《우리 문학은 어디서 왔는가》, 소설문학사, 1986.
- 金容稷編著, 《李箱》, 文學과 知性社, 1986.
- 李泰東, 《李箱의 神話와 知性》, 《小說文學》, (1983).
- 金鍾殷, 《李箱의 精神世界》, 《文學批評의 方法과 實際》, 東泉社, 1987.
- 李佳炯, 《프로이트 심리학과 현대문에》, 《文學批評의 方法과 實際》, 東泉社, 1987.
- 金景麟, 《李箱의 文學에도 異狀은 있다》, 《小說文學》, (1987. 3).
- 金昇薰, 《李箱은 詩를 어떻게 썼는가》, 《小說文學》, (1987. 3).
- 金允植, 《제우스神像, 예수像에의 길》, 《文學思想》, (1980. 6~10).
- 川村濤, 《모더니스트 李箱의 詩世界》, 《文學思想》, (1987. 9).
- 川村濤, 《李箱의 새로운 면모를 찾기까지》, 《文學思想》, (1987. 9).

- 李圭東, 〈精神分析學的으로 본 李箱〉, 《위대한 컬렉션》, 금조출판사, 1987.
- 宋在英, 〈李箱詩와 설르레알리즘〉, 《文學과 超言語》, 민음社, 1987.
- 金烈圭, 〈詩가 만든 책략의 장난기〉, 《우리의 전통과 오늘의 文學》, 文藝出版社, 1987.
- 李英子, 〈李箱의 詩「烏瞰圖」의 構造〉, 國語國文學93.